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369

소설이란 무엇인가

조 남 현*

목차

1. 소설본질론은 왜 필요한가
2. 소설본질론에 어떻게 다가가는가
3. 소설이란 무엇인가

1. 소설본질론은 왜 필요한가

전후의 한국인들을 위무해주었던 1950년대 한국소설, 의식의 혁명을 이끌었던 1960년대 소설, 청년문화를 고취하면서 저항의 대열에 뛰어들었던 1970년대 소설, 민주화운동의 한 견인차가 되었던 1980년대 소설, 진정한 사회변화와 발전의 참된 기록을 자임했던 1990년대 소설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설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말을 듣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한국소설은 정체성혼란(identity crisis)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잘 팔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주목받고 있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본질'이란 '역사'나 '현상'이 자연스럽게 귀납해주거나 유도해주는 것이라는 운명론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있을 만큼 한국소설의 환경은 낙관적이지 않다. 하기야 '소설의 죽음'이란 주장은 최소한 반 세기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되었던 바 있다. 이런 주장은 누보로망이라든가 포스트모더니즘소설과 같이 전통적인 소설작법을 전복시키는 사조나 유형을 낳기도 했다. 소설가들과 이론가들이 고루 모인 자리에서 당선작이나 수상작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현대소설작품에 대한 국내의 가치표와 번역소설을 받아본 외국에서의 가치표가 크게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 또 문학연구자들 사이에서 명작목록이 거의 고착되다시피 하는 현상을 보면서 문득 소설본질론의 작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2. 소설본질론에 어떻게 다가가는가

소설본질론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소설사에 등재된 소설작품들이 공유하는 특질들을 통해 소설본질을 추려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경우, 소설사에는 베스트셀러였지만 결국 3류작으로 평가된 작품들이 어느 시대고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이 방법에 연결지어, 소설사를 통해 추출되는 휴머니즘· 반전사상· 갈등· 사랑 등과 같은 몇 가지 대주제들을 모으고 이론상으로 잘 가다듬으면 소설본질론이 작성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둘째, 1급 소설작품들에서 소설의 본질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소설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소설본질을 추려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타당한 일도 아니다. 고전, 명작, 문제작 등 어떤 호칭을 쓰든 1급 소설을 관류하는 끝지점에 소설본질론이 있어야 한다. 명작은 기본적으로 소설의 본질을 담아내고, 지켜준다. 명작이나 문제작의 목록은 문학사가가 제시한 것을 알게 모르게 이어가는 결과로 남는 것이긴 하지만 그때 그때 평론가들과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기도 한다. 명작목록은 한 시대의 소설을 정리하는 전집 편집위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반독자들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물론 후자의 통로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1급소설을 통한 본질추출의 방법은 1급소설이 어떤 통로로 결정이 되었든 안정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특정 소설유형론을 소설본질론으로 발전시키거나 전환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소설을 많이 읽는 독자들과 역사소설을 연구하는데 힘쓴 이론가들은 소설은 역사의 보조수단이며 대체양식이라는 정의에 동의할 것이다. 관념소설이나 사상소설을 고전숭배하듯이 하는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소설은 사상서라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리얼리즘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이론가들은 소설은 현실을 거짓없이 그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독자들이 소설을 구매하고 읽는 동기는 소설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특정 이념을 배우기 위해서, 오락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등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소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는 독자들은 성장소설(novel of formation)이나 교양소설(Bildungsroman)이나 관념소설을 선택할 것이며 특정 이념을 배우려는 독자들은 크든 작든 이데올로기를 선전한 소설작품을 집어들 것이다. 그런가 하면 모험소설, 연애소설, 종교소설 등을 통해 현실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한 독자들도 있다. 역사소설이나 과학소설이나 경제소설이나 여행소설 등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는 독자들도 있다. 소설유형론은 작품들 사이에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인 만큼 어떤 소설유형에 주목해야 하는가가 숙제로 남는다. 한마디로 1급의 소설을 많이 보유한 소설유형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소설가들이 소설가나 소설에 대해 본질론적 수준의 의견을 직접 제시한 소설작품을 근거로 삼는 방법이 있다. 소설의 본질이나 특질에 대해 소설가와 이론가 중 누가 더 잘 아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소설의 본질을 소설에 대한 경험법칙의 결정체라고 할 때 창작경험과 독서경험 중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난문이 될 수 있다. 소설가는 자신의 창작방법이나 취향을 제일로 아는 경향이 있어 아무래도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론가는 관념의 벽에 부딪히기 쉬운 점이 있다. 정밀한 소설본질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창작경험과 독서경험의 상호보완을 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론이나 창작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해온 문학론에서든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분야에서든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론을 수용하여 소설본질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어떤 세계적인 이론을 수용하고 응용하든 간에 우리문학 연구자들은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소설작품을 통해' 응용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설작품을 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크기의 동심원을 그릴 경우, 가장 근거리의 동심원은 네 번째 방법이 그려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첫번 째 방법→두 번 째 방법→세 번 째→다섯 번 째 방법의 순서로 동심원이 작성될 것이다.

3. 소설이란 무엇인가

이상의 다섯 가지 방법을 고루 활용한 끝에 졸저『소설의 본질』(서정시학, 2018)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 (1)이단과 소외의 담론, (2)선비와 욕망의 존재론, (3)선비의 비판정신, (4)역사서술의 보조양식, (5)역사서술의 대체양식, (6)인간심리의 해부도, (7)고전의 활용, (8)사상과 형식의 실험실, (9)반항의 정신과 방법, (10)시적 특질의 내면화, (11)총체성의 인식, (12)이념선택과 초월, (13)기억과 상상력, (14)현상학적 시각, (15)진실탐구와 시련, (16)자기해방의 글쓰기, (17)부조리의 투시, (18)약자의 변론서, (19)대중성의 양면

첫 번째 방법을 통해 (1)~(3), (9), (15), (16), (18) 등과 같은 명제를 추출할 수 있었고 두 번 째 방법을 통해 (3)~(10), (13), (15), (17) 등의 명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세 번 째 방법을 취할 경우 (4)~(6), (12), (15) 등의 명제를 얻게 된다. (11), (14), (17) 등은 다섯 번째 방법에 가장 크게 기댄 결과다. 네 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명제의 정립을 고루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설양식을 경사류(經史類)에 들지 못하는 식으로 낮추어 본 태도를 반영한 명제 (1)은 (2)~(5)를 거치면서 수준높은 독자들을 확보하여 (6)~(12), (18) 등과 같이 소설이 고급의 양식으로 대우받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그럼에도 소설은 (1)에서 (18)에 이르기까지 (19)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대중성지향과 대중성지양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 명기되지 않은 명제 (20)에서는 "소설의 미래"라고 하여 소설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하였는데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성찰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던 만큼 (20)

“전문지식의 함유”라고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논어』, 『순자』, 『장자』, 『한비자』, 『율곡집』 등을 전거로 삼은 (1)“이단과 소외의 담론”에서는 “동서양 소설은 근대국가가 성립될 때까지 이단과 소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소설만 보더라도 20세기에 들어와 신문과 잡지에 발표되면서 정치사와 사상사의 중심담론을 만들어내었고 민심을 대변하기도 하였고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계몽담론의 생산자를 자임할 수 있었다” 등과 같이 주장했다. 『반계수록』, 『택리지』, 『성호사설』, 『서포만필』, 『정념론』(데카르트) 등을 전거로 삼은 (2)“선비와 욕망의 존재론”에서는 “봉건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이나 그를 떠받드는 중인 정도가 욕망의 주체임을 인정받았다.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구계급제도의 해체와 교육기회의 보급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이 욕망의 주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개인을 욕망의 주체로 보는 데서 근대소설은 시작되었다”와 같이 주장하였다. 『북학의』, 『연암집』, 『대동야승』, 『한국소설의 이론』 등을 전거로 한 (3)“선비의 비판정신”에서는 “현대사회에 올수록 지식인들은 표현자유가 확산되면서 현실비판의 기능을 행사하였다, 표현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풍자소설, 우화소설, 상징소설 등과 같이 우회적 비판의 방식을 취한 소설들이 현실비판의 역할을 해내었다”와 같이 주장했다.

『삼국유사』, 『사기열전』, 『역옹패설』 등을 전거로 한 (4)“역사서술의 보조양식”에서는 “역사가들이 정치와 경제, 공동체, 주류, 발전론 중심으로 역사기술하는데 비해 소설은 개인, 생활, 비주류, 실패론 중심으로 서술한다.”, “허균, 이옥, 정약용, 박지원 등의 한문소설은 작품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사관의 평가의 방법을 택하였다. 이야기를 통해 재미를 살리고 사관의 평을 통해 교훈을 주게 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와 같은 요지를 남겼다. 『대동야승』을 자료로 하면서 『역사철학강의』(헤겔), 『이야기의 철학』(노에

게이치) 등을 참고로 한 (5)“역사서술의 대체양식”에서는 “선비들의 개인문집은 역사서술로 대치해도 좋은 부분을 지니고 있다. 잡기, 쇄록, 일기, 야언, 전문록, 기사, 호찬, 한화, 일사기문, 만록, 파적록 등으로 불리고 있는 문집은 내용으로 보아 야사나 소설이란 말로 대치가 가능하다. 『삼국지연의』가 『삼국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소설을 통해 역사를 파악할 수도 있다”와 같은 요지를 남겼다.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사이에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모아놓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질 들뢰즈의 『의미의 논리』 등을 참고로 한 (6)“인간심리의 해부도”에서는 “인물의 심층심리에 대한 묘사는 소설 특유의 유전적 요인이다. 정신분석학적 연구방법은 소설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날 소설은 정신분석학적 촉수가 닿지 못하는 인간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와 같은 요지를 남겼다.

『황금나무가지』(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미학강의』(헤겔), 『한국의 속담』(이기문) 등을 전거로 한 (7)“고전의 활용”에서는 “소설의 새로움은 과학공상소설, 재난소설, 미래소설 등과 같이 새로운 소재에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서술방법에서 찾을 수도 있다. 새로운 소설의 창작을 표어로 내세우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이러니칼하게도 혼성모방, 상호텍스트성 등과 같이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소설사』(알베레스), 『문학은 자유다』(수전 손택), 『최근 소설이론』(윌레스 마틴), 『보한집』(최자) 등을 참고문헌으로 삼은 (8)“사상과 형식의 실험실”에서는 “한국현대소설사에서는 저항적이며 급진주의적 경향의 소설이 식민통치 극복을 위해 인식론적 실험을 강행했던 1920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인식론적 실험은 형식의 실험을 촉발하여 한국소설의 근대화를 이룩했다.” “고전이나 명작으로 불리는

소설들은 당대를 뛰어넘는 사상이나 형식면에서의 실험을 꾀하거나 성공시켰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사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의 실험정신은 좋은 소설의 충분조건이기보다는 필요조건에 가깝다"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문학과 혁명』(레온 트로츠키), 『문학과 사회』(한스 이 노자크), 『문학이란 무엇인가』(장 폴 사르트르), 『초현실주의』(이브 드프레시) 등을 참고문헌으로 한 (9)"반항의 정신과 방법"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서 형성되고 전개된 한국현대소설의 작가들은 일제강점기, 해방직후의 혼란, 한국전쟁, 남북분단, 독재정치,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면서 선량한 개인들의 기본권을 마구 유린하는 강압적인 타자들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일례로 일제강점기에 옥살이 모티프를 중심모티프로 취한 소설이 많이 나타난 점은 이러한 반항의 태도를 잘 입증해준다"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삼국유사』, 『미학강의』(헤겔), 『시와 철학』(마르틴 하이덱거), 『아이러니』(뮈케), 『소설과 소설가』(오르한 파묵) 등을 참고로 한 (10)"시적 특질의 내면화"에서는 "소설양식을 더욱 힘있는 것으로 유도하는 힘은 시적 자질의 하나인 미적이며 압축된 언어표현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력적인 단어들과 미문들은 자국어에 대한 작가의 수호와 발전의지를 잘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미문을 잘 구사하고 국어의 깊이와 넓이를 잘 증명해주는 작품들은 호평을 받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인식에 닿았다. 『교양과 혼란』(매튜 아놀드), 『소설의 이론』(게오르그 루카치), 『정치적 무의식』(프레드릭 제임슨), 『마르크시즘과 총체성』(마틴 제이) 등을 참고문헌으로 삼은 (11)"총체성의 인식"에서는 "소설가가 헤겔 식으로 총체성을 그리려면 절대정신과 같은 문제를 다룬 사상소설이나 영웅소설을 써내야 하고 마틴 제이 식으로 그리려면 심훈의 『상록수』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처럼 보다 나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식의 총체성의 개념은 노동자나 농민의 투쟁을 그린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와 인식에 닿았다. 『선악의 피안』(프리드리히 니체), 『이데올로기와 이론』(페터 지마), 『체험과 문학』(빌헬름 딜타이), 『정치와 소설』(어빙 하우) 등을 참고문헌으로 한 (12)"이념선택과 초월"에서는 "조지 오웰은 모든 이데올로그들을 향해 창작 주체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선전의 냄새가 나면 문학적 성실성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경향은 어느 나라의 작가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싸르트르, 조지 오웰, 아놀드 하우저, 이병주 등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고수나 선전은 예술정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에 닿았다.

『헤겔미학』, 『체험과 문학』(빌헬름 딜타이), 『폴 리쾨르, 비판과 확신』,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등을 참고한 (13)"기억과 상상력"에서는 "기억은 창작의도에 맞게 재구성되거나 축소되거나 증대되기도 한다. 기억은 소재를 모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과거사실을 확인하는 장일 수도 있고, 글쓰기의 충동으로 재생될 수도 있다. 개인사적 차원의 기억은 반성, 향수, 자부심, 한 등을 수반하곤 한다. 공상, 환상, 몽상 등과 같은 상상력의 친족개념들은 이야기의 재미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진실탐구라는 이야기의 목표를 뒷받침해주기도 한다"와 같은 원론으로 시작하였다. 『존재와 시간』(마르틴 하이덱거), 『장자』, 『예술작품론』(로만 인가르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니체), 『예술의 비인간화』(오르테가 이 가제트), 『현상학과 문예학』(조란 콘스탄티노비치) 등을 전거로 한 (14)"현상학적 시각"에서는 "잡담, 호기심, 모호성, 타락 등과 같은 현상학의 키워드들은 소설에서의 진실탐구라는 문제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소설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진실을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계기를 가지며 또 그런 자세를 터득하게 된다"는 해석으로 나

아갔다. 『예술작품의 근원』(하이덱거), 『리얼리즘』(대미언 그랜트), 『나는 왜 쓰는가』(조지 오웰),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참고문헌으로 삼은 (15)“진실탐구와 시련”에서는 “소설의 본질의 하나를 리얼리즘의 구현에서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정 이익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 특정 이념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고, 정치권력에 굴복하고, 대중적 취미에 영합하는 것은 리얼리즘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리, 진실, 양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열정이 없으면 소설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나아갔다.

『정치적 무의식』(프레드릭 제임슨), 『나는 왜 쓰는가』(조지 오웰), 『중국역대소설서발역주』 등을 참고로 한 (16)“자기해방의 글쓰기”에서는 “식민통치, 한국전쟁, 좌우 이념대립, 독재정치, 가난, 대형참극 등과 같은 우리 현대사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런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설쓰기를 선택했다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와 같이 해석했다. 장편소설 『구토』(장 폴 싸르트르), 『부조리』(아놀드 힌치리프) 등을 검토한 데서 나온 (17)“부조리의 투시”에서는 “부조리는 철학용어보다는 사회학 용어로 , 전문용어보다는 상식어로 사용되면 한때의 유행어로 취급되기 쉽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사용했던 것만큼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조리의 연관어로 모순, 유한성, 허무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스트모던 서사이론』(마크 커리),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박희병) 등을 참고로 한 (18)“약자의 변론서”에서는 “소설은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적과 동지, 주체와 타자 등의 갈등을 다루어 왔다. 약자의 범주에 드는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강자, 부자, 지배자 등의 부도덕, 불합리, 불법의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비판하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와 같이 주장했다. 『안티 크

리스트』(니체), 『짜라트스투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니체), 『정신병리학의 문제들』(프로이드), 『문학과 혁명』(레온 트로츠키), 『예술의 비인간화』(오르테가 이 가제트) 등을 참고문헌으로 한 (19)"대중성의 양면"에서는 "소설은 전문분야의 서적에 비하면 대중지향적이고 대중수용적이고 대중소비적인 표현양식이다. 소설가들은 자신의 소설이 한 권이라도 더 많이 팔리고 읽히기를 바라는 식의 대중지향적 성격을 보이지만 가볍게 읽힐 만큼 대중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중적 수준이라는 평가 속에는 감동적인 것도 없고 계몽되는 바도 없다는 독자 반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이 이중성을 해석하였다.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마르트 로베르), 『소설과 소설가』(오르한 파묵), 『소설의 기술』(밀란 쿤데라),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가의 일』(김연수) 등을 참고로 한 (20)"소설의 미래"에서는 소설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성찰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설의 본질』은 소설에 대한 견해를 밝힌 소설작품들을 다수 찾아내어 소설본질론의 명제들과 연결시킨 점을 특징의 하나로 삼는다. 이문열의 장편소설 『시인』에 나타난 문학론은 명제 (1)을, 정찬의 『그림자 영혼』, 박상우의 『비밀문장』, 이청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 이승우의 『오래된 일기』 등은 명제 (6)을, 김용성의 『기억의 가면』, 김경욱의 『위험한 독서』 등은 (8)을, 이청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 『자유의 문』은 (9)를, 조성기의 「홍소령기」, 「우리 시대의 소설가」, 「우리 시대의 무당」,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등은 (11)을,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 『행복어사전』, 이문열의 『영웅시대』, 윤후명의 「여우사냥」 등은 (12)를, 이승우의 『생의 이면』, 『오래된 일기』, 정찬의 「죽음의 질문」 등은 (13)을, 이청준의 『자서전들 쓰십시다』는 (14)를, 박완서의 『나목』, 「도둑맞은 가난」, 정찬의 『그림자영혼』 등은 (16)을, 이인성의 『한없이 낮은 숨결』,

백가흠의 『힌트는 도련님』은 (17)을, 임철우의 『백년여관』, 박완서의 「사람의 일기」 등은 (18)을, 이병주의 『행복어사전』은 (19)를 힘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중 복수심과 지배욕을 키워드로 하는 이청준의 소설본질론과 소설에는 고소의 사상이 없다는 식으로 소설의 위상을 냉정하게 정해보려 한 이병주의 소설본질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청준의 복수심의 행사과정은 독서→인간심성의 비밀 파악과 인간관계의 이해→선과 정의와 힘이 넘치는 질서 마련→소설쓰기→복수심의 행사와 이념화→삶의 해방의 과정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청준은 "작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궁핍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압제받는 사람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의를 고발하기 위해,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등등……인간사회 본래의 도덕률에 합당한 일은 무엇이나 나무랄 데 없는 작가의 책임이요 작가의 몫으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자서전들 쓰십시다』, p.116)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대승적이며 이타적인 것으로 보이는 작가들의 창작동기에는 허세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바로 이청준의 복수심은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이, 공적인 것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이념 때문에 이성이 질식당할 것을 우려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복수심과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는 의미의 '지배욕'을 키워드로 삼는 그의 소설관은 (6)"인간심리의 해부도"에 넣기는 하였지만 그는 (11)"총체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병주는 『행복어사전3』(pp.228-229)에서 북악스카이의 팔각정에서 600만 서울시민이 사는 서울 시가를 내려다보며 "소설가는 고소의 사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일까"하고 자문한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예수, 장자 등을 고소의 사상가로 묶으면서 "고소의 사상엔 소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고소에서는 "흐느껴 우는 여인의 눈물", "발랄한 청춘의 웃음소리", "실직한

가장의 한숨“, ”성난 정열의 외침“ 등 소설이 담아야 할 것들을 들을 수가 없기에 소설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행복어사전3』에 유로된 이병주의 소설본질론은 (19)”대중성의 양면“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병주는 다른 소설작품들을 통해 (3), (4), (8), (11), (12) 등과 같은 명제를 실천에 옮겼다.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